

개서를 다시 번안한 것으로 최한기는 세계 각국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모두 소개하고 있지만 그 자신은 외국을 가 본 적이 없다. 아마 중국도 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영국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그는 중국책에서 영어 알파벳을 베껴놓은 것이다.

### 알파벳 26자 그림처럼 그려

「지구전요」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1장 끝 부분에 중국과 서양의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서양문자로 알파

1857년에서야 이 땅에 처음으로 이 정도의 영어 소개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과학발달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서양 지식층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극을 받아 서양말을 배워 서양책을 읽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최한기가 영어 알파벳을 처음 소개하기 80년도 더 전에 일본인들은 화란의 의학책을 일본말로 번역해 내기까지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서양 선

## 영어알파벳 처음 소개한 崔 漢 綺(1803~1877)

1857년에 쓴 「地球典要」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영어 알파벳을 소개한 마지막 실학자 崔漢綺.

19세기 초 중국에서 나온 귀한 책을 비롯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던 그는 「陸海法」 등 농업기술서적과 「神氣通」 등 철학서적, 「星氣運化」 등 서양천문서적을 내놓았다.

朴 星 來

〈한국외대교수 / 과학사〉

우리나라에 처음 영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거의 마지막 실학자로 꼽을 수 있는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1857년에 쓴 「지구전요」에 영어 알파벳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최한기는 이 책 말고도 당시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여러 책 가운데 서양과학을 국내에 소개한 것으로 기억될 만하다.

그가 쓴 「지구전요」(地球典要)라는 책은 사실은 중국에 나온 서양지리 소

벳을 그려놓고 있다. 서양의 글자는 26자이며 한 자씩 모두 그려져 있는데 그 글자 모양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꼴과 너무 달라서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여하튼 이렇게 26자를 그려놓은 다음 그 가운데 오직 3글자만이 홀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는 하나라는 뜻이고 I는 나를 가리키며 O는 감탄사로 쓴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이 글자들을 2자 이상씩 섞어서 얼마든지 여러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고 잘 설명해 놓았다.

교사들이 북경에 들어와 살며 수많은 서양과학책을 번역해 내고 있었다.

### 중국선 16세기 서양과학 번역

중국에서는 1600년대 초부터 기독교 서적과 과학, 수학책들이 번역돼 나오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때 마테오 리치가 번역해낸 「기하원본」(幾何原本), 「천주실의」(天主實義)를 들 수 있다. 그 후 수많은 서양과학기술서가 선교사들의 번역으로 출간되었고 우리 실학자들도 극히 일부는 중국에서 사다가 읽을 수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1774년 일본 난학자(蘭學者)들이 의학서를 번역한 이후 서양과학책을 읽고 번안해내는 일이 계속되어 1800년대 초까지는 서양의 근대과학 모두가 일본책으로 나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전혀 자극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초까지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최한기는 바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서양 과학을 중국을 통해서나마 국내에 소개하는 일에 스스로 발벗고 나선 선각자였다. 아버지 최치현(崔致鉉, 1786~1812)은 일찍 죽었지만, 그의 양아버지 최광현(崔光鉉, 1760~1837)은 상당히 재산이 있어서 그의 집에는 없는 책이 없었을 지경이었다. 19세기 초의 서울에서 가장 귀한 책이 많았던 집이 바로 최한기의 집이었다고까지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

당시의 귀한 책이란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서양의 기독교와 과학기술서를 가리킨다. 최한기는 바로 이런 책들을 비싼 값에 사들 수 있는 형편에 있었고 귀한 책을 마음껏 읽으며 그의 학문세계를 살찌울 수 있었다.

1830년대에 이미 그는 「육해법」(陸海法)과 같은 농업기술에 관한 책, 세계지도 그리고 「추측록」(推測錄), 「신기통」(神氣通)과 같은 과학과 철학을 연결하는 노력 등을 발표했다. 그 후에도 그의 저술활동은 계속됐는데, 대표작으로는 수학책으로 「습산진벌」(習算津筏, 1850), 세계의 사정을 소개하는 「지구전요」(1857), 「인정」(人政, 1860), 근대 의학을 중심으로 약간의 근대과학을 소개한 「신기천험」(身機踐驗, 1866), 근대 서양천문학 지식을 전달하는 「성기운화」(星氣運化, 1867) 등이 있다.

### 저술내용 다양 ... 놀라운 인물

이 책들은 오늘 한국의 학자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1836년에 쓴 「추측록」과 「신기통」에만도 수많은 서양 근대과학에 대한 지식이 질펀하게 나열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가 어디서 이런 지식들을 얻어 그의 것으로 소화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의 집에 중국에서 나온 온갖 서양 과학서적들이

있어서 이를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서양과학 내용을 그는 나름대로 동양적인 사상의 틀 속에 잘도 짜집기해놓고 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최한기 혼자 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836년의 이들 책 속에는 우주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차 빈 공간이 없고 그 안에서 모든 힘은 파동을 만들어 멀리 전파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지금의 '파동'을 훈(暈)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리, 냄새, 색깔이 모두 이 파동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를 그는 성훈(聲暈), 취훈(臭暈), 색훈(色暈)이라 부르고 있다.

### 최초의 서양과학 소개에 공로

또한 최한기는 천체의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며 지구는 하루 한번 자전하여 낮과 밤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1836년 최한기의 지동설은 아직 지구의 공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지동설이라면 홍대용이 70년쯤 전에 주장한 일이 있다.

한편 그로부터 21년 뒤에 쓴 「지구전요」에는 그때까지의 지구와 태양계의 운동 관계에 대한 몇가지 이론을 소개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주장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톨레미, 티코, 머르센, 코페르니쿠스로 내려온 서양 우주관의 과정을 그림으로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전요」는 그 서문에도 밝힌 것처럼 최한기가 지은 책이라기보다는 그가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책이 중국에서 나와 있던 서양

세계를 소개하는 책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임을 밝히고 있다. 또 그는 1867년의 「성기문화」도 그 서문에 밝혀있는 것처럼 중국에 나와 있던 천문학 책 「담천(談天)」을 근거로 쓴 책임이 밝혀져 있다.

뿐만 아니라 1866년의 「신기천험」도 역시 중국에서 나온 서양의학책을 참고해서 쓴 것이라 밝혀져 있다. 앞의 것은 영국 천문학자 윌리엄 허셀(1738~1822)의 천문학책을 중국어로 번역한 「담천」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담천」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선교사 알렉산더 와일리가 중국 수학자 이선란(李善蘭)과 협조해서 번역한 것이다. 그의 「신기천험」은 그가 밝힌 것처럼 역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의사 존 홉슨의 여러가지 의학 및 과학책을 참고해서 근대 의학을 소개한 것이다.

이 책은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권이 앞의 7권에 걸친 의학과는 내용이 다르다. 즉 여기에서 그는 온도계, 습도계 등을 소개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등의 근대원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황산, 질산, 염산 등의 산 종류와 함께 빛과 전기에 대한 물리학 지식도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명백히 그가 홉슨의 책들에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최한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주 독특하고 참신한 독창적 사상을 키워간 실학자로 손꼽혀 왔다. 그런데 그의 서양과학 소개는 아마 많은 경우 중국에서 나온 책들을 베끼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대로 당시 아무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조선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선구자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